

“지역사회 살리자”... 이전기관 성과급 일부 지역화폐 지급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경영평가 성과급을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잇따르고 있다.

1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코로나19 확산과 수해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직원의 경영평가성과급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진흥원은 총 615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임직원에게 지급했다. 또한 김영준 진흥원장은 경영평가성과급 10%를 자진 반납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한다.

진흥원은 상생과 공감을 기반으로 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달 초에는 나주 지역 아동양육시설 대상으로 진행된 ‘한 여름 밤의 꿈 상영회’에 콘텐츠도서관 DVD를 전달한 바 있다.

김영준 원장은 “이번 온누리상품권 지급

은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사가 뜻을 같이 한 결과”라며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 상생협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과 전국전력노동조합은 직원들의 9월 급여 105억원 상당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및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사 양측이 합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다.

앞서 한전은 자회사와 함께 코로나19 고동 분담을 위해 5억9000만원의 급여 반납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하고, 직원들이 직접 조성한 ‘러브펀드’를 통해 제작한 수제 마스크 10만세트를 기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한전, 노사 합의 통해 급여 105억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콘진원, 6150만원 상당 온누리 상품권 지급... 성과급 기탁도
사학연금 임원경영평가 성과급 반납금 근로복지기금에 기부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성금 32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고, 전국 1694개 전통시장에 손 소독제 10만개를 배부했다.

전력그룹사 한전KDN은 지난 7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우선 간부직급들의 경영평가 성과급 일부를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회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상품권 구입액은 1인당 약 60만원 규모였다. 노사는 합의를 통해 일반 직원 성과급 일부에 대해서도 상품권 지급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직원들에게 지급하게 되는 상품권은 약 10억원 상당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하계 휴가 기간을 맞아 소비를 진작시키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한전KDN 측은 기대했다.

박성철 한전KDN 사장을 포함한 임원 및 고위간부들은 지난 4월부터 1년간 월급여 일부를 반납하며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및 사회적 소외계층에 기부하고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

금)은 지난 달 임원 경영평가 성과급 반납금과 TP희망나눔기금 조성액을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했다.

총 2000만원에 달하는 이 기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대책에 쓰인다.

기부금은 코로나 위기 관련 고등분담 차원에서 임원이 자율 반납한 경영평가 성과급과 임직원 기부금(봉급공제) 등으로 마련된 TP희망나눔기금으로 조성됐다.

사학연금은 두 차례(1차 35%, 2차 50%)에 걸쳐 보유 회관 임대료를 인하하고 지역농가와 소상공인 소비진작 지원 등 내수 경제 진작과 고용창출을 위한 활동을 추진해왔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나주 혁신도시 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지역사회상품권 성과급 지급에 동참했다.

농어촌공사의 올해 성과급 지급 예상액은 총 900억원대로, 전체 정규직 6300명 가운데 800명이 나주 본사에 있다. 공사는 10억원 상당 지역사회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했다. 공사는 지난 5월부터 4개월 동안 임원 월급여의 30%와 부사장 월급여의 10% 1개월분인 약 1억8000만원을 반납했다. 공사 노동조합도 지난 3월 노동조합비 절감분 3억원으로 전국 지역농산물상품권을 구입했다.

지역사회상품권 등으로 성과급 지급을 마친 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5000만원에 달하는 나주지역상품권 구매에 동참했다. aT는 나주지역상품권 외에도 다른 지역사회상품권(110만원), 온누리상품권(1320만원) 등 총 6430만원 상당을 구매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학연금, 비대면 청렴교육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배외숙 상임감사가 1일 나주 본사에서 청렴교육을 펼쳤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렴한 조직풍토 조성 및 사학연금공단 2020 갑질 제로(0) 달성을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나라 PC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배 상임감사는 나주 본사를 시작으로 서울, 부산, 대전센터를 순회 방문하며 교육을 할 예정이다.

교육은 ‘청탁금지법 바로알기’와 ‘청렴·반부패 규정과 사례’, ‘업무지시 공정성과 갑질 관행 근절’, ‘내부 정보 유출관련 업무정확행위 사례’ 등 내용에 샌드아트 공연 등을 곁들여 구성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태풍 ‘마이삭’ 피해예방 대책 점검
김인식(맨 왼쪽)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1일 나주 본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제9호 태풍 ‘마이삭’ 피해예방 비대면 영상회의를 열고 대책을 점검했다. 공사는 지난 달 28일부터 저수를 70% 이상 저수지 사전방류와 공사현장 1077개소 및 배수장 942개소에 대한 긴급점검을 추진했다.

〈농어촌공사 제공〉

농어촌공사, 건설 현장 중대재해 예방 나선다

안전 제도정비·현장점검
‘씨에스-해셉’ 시스템 구축

한국농어촌공사는 중대재해예방시스템 ‘씨에스-해셉’(CS-HACCP)을 구축하고 본격적으로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씨에스-해셉’은 식품위생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에서 착안한 이름이다. 이 시스템은 건설공사현장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중점관리를 통해 건설공사

안전을 지키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현장은 1570개 지구로, 이중 50억원 이하의 소규모 현장이 전체 관리지구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50억원 이하 건설현장은 법적으로 안전 관리자 배치의무가 없다보니 안전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공사는 여건에 맞는 안전관리시스템으로 CS-HACCP을 구축하게 됐다.

이 시스템은 안전 제도정비, 교육 및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상반기부터 시범 운

영 중인 누구나(NUGUNA)시스템과 함께 ‘안전D.N.A 프로세서’를 중심으로 재해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한다.

안전DNA프로세서는 데이터(제도정비, 안전교육, 현장점검), 네트워크(시스템을 통한 건설재해 관리), 어치브먼트(대외위상 정립)의 약자다.

먼저 안전신고 콜센터 운영, 신규 일용 근로자 별도 관리, 휴일작업 사전등록제 의무화 등 제도 정비가 나서기로 했다. 경영진은 직접 정기 안전점검을 하고, 안전경영추진단에서 불시 안전점검을 한다.

발주, 설계, 시공 단계별 안전관리와 건설 참여자별 안전관리 이행사항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현장에서도 법적 사항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사는 이번 해셉 시스템 구축으로 기존의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안전관리 방식을 탈피해, 자율적, 종합적, 체계적인 안전관리 효과를 기대했다.

김인식 사장은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해셉 시스템 구축은 사고 위험을 예측해 미리 예방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aT, 농식품 수출물류비 연말까지 확대 지원

선박운임 kg당 9원 추가
품목 전체 농식품으로 확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8월 까지 진행한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을 9월부터 연말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항공운임의 경우 표준물류비의 7% 지원에 더해 7%를 추가 지원한다. 선박운임도 7% 지원에 kg당 9원의 수출물류비를 더 지원한다.

항공운임 지원 품목은 딸기, 버섯, 화훼 등 신선 농산물에서 전체 농식품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지난 7월 말 기준 약 43

억 달러(5조1075억원)를 달성했으며, 지난해 동기대비 5.6%의 수출 상승을 이끌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측은 물류비 추가 지원 외에도 온라인 수출상담회, 온·오프라인 판촉, 수출정보 제공, 비대면마케팅 등 생산농가와 수출업체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신현근 식품수출이사는 “올해 냉해와 가을철 태풍 등의 영향으로 신선 농산물 수출량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하반기에 수출이 집중되는 배, 단감, 사과 등 신선 농산물을 비롯해 수출농식품 전 품목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함으로써 수출업체의 물류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KISA, 공공기관 최초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사원증 도입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사원증 도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분산신원증명(DID) 기술을 적용한 모바일사원증은 발급·출입 이력 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인증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이용자 스마트폰에 암호화해서 보관하기 때문에 기존 사원증보다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고 진흥원 측은 설명했다.

스마트폰의 근거리통신 기능과 QR코드 방식을 모두 지원해 사무실 출입뿐 아니라 도서대출·구내식당 이용 등에도 활

용하며,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을 KISA코인(가칭) 등 방식으로 제공하고 사무용품이나 다과·음료 결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진흥원은 모바일사원증을 오는 10월 말까지 나주 본원에 먼저 도입한 뒤 서울과 판교청사에도 올해 안에 들여올 계획이다.

김석환 원장은 “공공기관 최초 DID 모바일사원증 도입이 직원 편의성과 보안성 향상뿐 아니라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한 비대면 신원인증 서비스 등을 발굴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참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